

2023. 12. 27.(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2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협력과장

조재광

2133-9831

여성청소년팀장

박세원

2133-9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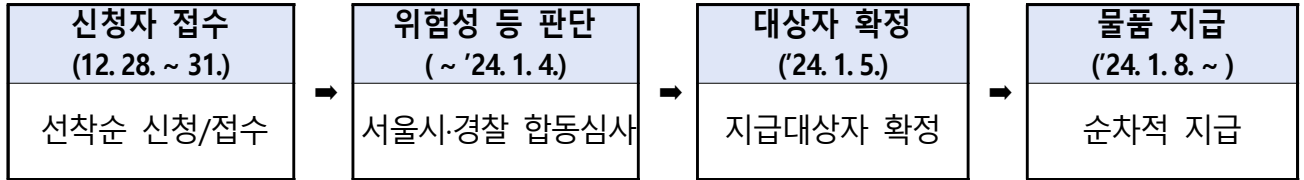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4쪽

서울시-서울경찰청, 안심물품 '지키미' 1만 세트 28일부터 지급 시작

-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현장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
- (현장지급) 경찰서·지구대 등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 시 지급
※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 (인터넷 신청접수) 시 누리집 이용 신청 → 위험성 등 판단 → '24. 1. 8.부터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순차 지급
- 서울시-서울청은 범죄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보호·지원활동 전개

- 서울시는 12. 28.(목)부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키미(ME)'는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50%로 진행된다.
 - 현장지급은 12. 28.(목) 10:00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 인터넷 신청접수는 12. 28.(목) 12:00부터 서울시 누리집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등 판단 후 '24. 1.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 다만, 이번 안심물품 ‘지키미(ME)’ 보급 사업은 1만 세트 소진 시 종료되며 향후 효과성 분석·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중심 조직개편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호신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보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기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안심세트 ‘지키미(ME)’ 사진**



< 지키미 박스 정면 >

< 지키미 구성(전체) >



< 지키미 - 휴대용 SOS 비상벨 >

< 지키미 - 안심 경보기 >

긴급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지키미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휴대용 SOS 비상벨 | 안심 경보기 세트

지키미 세트는 '휴대용 SOS 비상벨', '안심 경보기'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휴대용 SOS 비상벨'은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한 휴대용 구조요청기로 스마트폰 App과 연동, 사용자가 지정한 번호 및 112로 SOS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입니다.

※ 기기 작동 시 등록된 지인 5명에게 구조문자 발송 / 20초가 지나면 경찰에 자동 신고 기능 탑재



유용한 사용법과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1. 외출하실 때 비상벨 앱(App)이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과 시 해당 앱(App)이 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비상벨은 긴급상황 시에만 사용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테스트 또는 오작동 된 경우 경찰력 낭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범죄 대응이 악화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기를 사용하기 전 오작동 방지를 위해 기기 사용법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비상벨 사용 시 경찰 구조요청이 아닌 경우 20초가 지나기 전에 재결합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4. 비상벨 앱(App)에서 기기 등록 후 'SOS 기능'에서 기기 싸이렌 기능을 OFF 하면 무음 선택도 가능합니다.
5. 휴대용 SOS 비상벨의 경우 블루투스 기반 제품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휴대폰과 일정 거리 (약 10M) 떨어지면 112 긴급 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지원 물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재판매하거나 유·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지원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할 경우, 즉각 회수·기기 작동 중단 또는 해당 지원 물품 가액(5만원)에 상응하는 비용이 징구 될 수 있습니다.

'안심 경보기'는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기입니다.

위험 상황에 노출되거나 주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보급 문의 : 120(다산콜센터)
- 제품 문의 : 1. 휴대용 SOS 비상벨 : (주)이에치아이 031-241-8588
 2. 안심 경보기 : 에이치엠이노엔 02-442-7511

'지키미'가 귀하의 안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